

牛乳와 나의 人生

建国大学校 畜産大学 畜産經營學科 教授

經濟學博士 柳 濟 昌

1939년은 내가 父母님의 恩德으로 祖国 韓國의 男兒로 태어난 해이다.

일제의 착취 속에 고달픈 胎中生活을 마치고 세상에 出世(?)하여 어머니의 母乳를 마시면서 나는 정말로 맛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막내동이라 할지라도 2~3才가 되었을 땐 粉乳가 아닌 보리밥으로 代替되었을 것이고, 牛乳의 맛은 국민학교 재학시절에 美國의 구호식량으로 보내온 粉乳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農村의 貧農의 아들로 태어난 내가 콩나물죽과 무우죽은 실새없이 마셨지만 시원하고 고소한 牛乳를 마신 기억은 없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1959년에 나는 建国大学校의 設立者이시며, 우리 民族의 등불이시고 先覺者이신 故 常虛 劉錫昶博士님의 恩德으로 畜産大学의 一期生으로 入學하였으니 내 人生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다.

畜産大学 入學生 全員은 校費獎學生이었기 때문에 4年間 完全獎學生으로 宿食까지 提供하여 주었으며, 校費에 의한 食堂運營으로 自治的으로 學生들이 맡아 관리하게 되었다.

나는 商高出身이라는 점이 理由가 되어 食堂運營 責任者가 되었다.

當時에 나는 工夫하는 學生들에게 健康을 維持시키며 頭腦活動에 必須의인 營養을 計算하여 食單을 준비하였는데 記憶에 생소한 것은 牛乳를 每日 供給하는 메-뉴였다.

나는 人間의 可能性을 研究하면서 우리의 頭腦가 約 150億個의 大腦皮質細胞로 組織되었으며 그 細胞들의 活動으로 思考하고 記憶하는 등의 온갖 頭腦活動이 전개될 수 있고 이들 활동을 위해서는 蛋白質과 Vit B, B₆, B₁₂가 꼭 必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Vit B類와 Protein 중에서 가장 良質의 것을 함유하고 있는 牛乳는 우리의 頭腦活動에 무엇보다 必須的인 것으로 判斷하여 大學의 附屬實習 牧場에서 牛乳를 購入하여 마시게 하였다.

牛乳의 德沢인지 60名の 一期生은 계속 成長하여 15名の 博士가 誕生하였고, 우리나라 乳業界를 비롯한 畜産分野의 指導者로 맹활약중이다.

大學 2년을 마친 一期生은 1961년 4월에 全員 學자로 입대하여 軍생활을 마치고 일제히 63

년에 3학년에 복학하였다.

64년부터 地域社会開墾의 先驅者가 되겠다고 野山 20,000餘坪을 곡괭이로 開墾하여 「信念農場」을 건설할 때는 牛乳를 마실 수 있는 經濟事情이 어려웠기 때문에 보리차를 마시곤 하였다. 65년 졸업과 동시에 農場經營에 동분서주 하던 나는 日本大学 農獸医学部 招請으로 同年 8月 9日 渡日하게 되었다.

渡日前에 나는 어느 곳에 가서 畜産의 技術과 理論을 배우는 것이 귀국 후에 韓國畜産發展에 더욱 많이 寄与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思念放射의 原理를 活用하여 많은 能力을 갖추고 귀국할 수 있도록 調節하였던 바 日本 酪農의 開拓者로 有名한 黒沢西藏 先生の 牧場으로 研修配置를 받게 되어 젓짜고 끝배는 牧童生活이 시작되었다.

약 60餘頭의 젓소를 관리하는 관리능력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과 노력이 뒷받침되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每日 마시는 牛乳 2kg(11병)은 나의 体力을 유지하는데 必要하고 充分한 條件이었다.

日本主人이 내가 日本人의 3倍의 能力이 있다고 評價하였을 때 나는 牛乳의 恩德임을 새삼 切感하였다.

故郷에서 보리차로 開墾하던 당시의 体力과 젓소 60여두의 관리를 牛乳 11합으로 거뜰히 해낸 体力을 比較하면서 牛乳의 眞價를 體驗으로 再發見하기에 이른 것이다.

大学 當時 乳學의 成績이 공교롭게도 100點을 맞았는데 그 滿點의 點數로도 느끼지 못했던 牛乳의 本體를 마시면서 터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5年의 우리나라의 젓소의 頭數는 불과 6,600餘頭인데 比하여 일본은 약 200백인 130餘萬頭에 육박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日本과 우리나라와의 젓소 사양두수의 차이가 너무 극심해서 부끄럽고 피가 솟아 올랐다.

일본은 남한보다 면적이 약 4배, 인구가 약 3배로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營農方法을 가진 가장 인근에 있는 나라이다. 우리나라가 약 67%의 임야를 가지고 있으나, 일본도 약 61%가 임야이며, 쌀농사 보리농사를 통한 곡류중심의 食生活 構造를 가진 나라이다.

그렇게 類似한 与件 속에서 우리보다 빨리 畜産의 積極的인 導入과 政策的인 配慮가 있었기 때문에 均衡있는 經濟國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均衡있는 食生活 構造를 改善하기 위한 畜産, 특히 酪農政策의 合理化는 日本國民의 體位向上에 決定的인 貢獻을 하였던 것이다.

과거에 우리는 일본사람을 왜놈이라 지칭하였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체격이 왜소했기 때문에 부른 호칭이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젓소는 불과 200,000여두, 일본은 2,000,000여두를 넘고 있다.

아직도 우리보다 10배 이상의 두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頭當 乳量도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條件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현재의 청소년층의 체격이 역전되는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다.

다음 機會에 具體的인 資料를 提示하겠으나, 국민학교 학생(남자) 6년생의 신장이 4.1cm나 차이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간과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는 일본사람이 우리를 왜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항변할 수 있겠는가?

내가 처음으로 酪農經營의 研修過程에서 切

實히 느낀 점은 앞에서 밝힌 黑沢牧場의主人은 남자 160cm, 여자 150cm의水準이었으나 매일牛乳를 마음대로 마시는 三兄弟들은 170cm~175cm의 신장을 가지게 되었으니牛乳의偉力이다시 돌보이는 실례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83才이던 黑沢西蔵先生은 每日牛乳 6合으로 健康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노인이 아닌 青年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세계 타이틀 보유자이기도 했던 모복신선수가 논타이틀전이긴 했지만 무명의 일본 복서에게 관정패하는 시합을 목격한 나는 당시에 이렇게 決心하였다.

오늘의 시합은 개인 당사자의 体力이 아니고, 한국 전체 국민의 영양과 일본국민의 영양과의 싸움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힘의 대결이 계속 될 것인바 根本的인 要因分析으로 長期的인 解決方案이 나와야 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일본사람보다 영양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서 安心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영양의 供給源인 食生活의 改善이 要求되며, 이를 위해서는 農業生産構造가 同時에 改善되어야 한다고 判斷하였다. 즉 米麦中心의 營農方式에서 脫皮하여 畜産部門의 選扞的 拡大에 의한 均衡있는 動·植物性 食糧 増産이 必須條件으로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平素에 韓國畜産立國의 旗手가 되겠다고 생각한 強烈한 使命意識은 우리보다 앞선 일본 땅이기에 더욱 불타오르기 시작하였다.

1967년 1월 1일 나의 人生設計를 점검하면서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지금까지는 畜産의 技術을 研修하여 귀국후에는 模範的인 牧場을 經營하여 農村도 잘 살 수 있다는 “信念”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信念

農場에 집착하고 있었으나, 韓國全體의 畜産이 發展하자면 個別 畜産經營이 合理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畜産經營學이 切實히 必要하다고 判斷하였다.

여기에서 나는 時代的 使命感을 느끼면서 畜産經營學 專攻을 위해 大學院의 進學을 決心한 것이 1월 20일이였다.

2월 20일에는 大學을 선정하고 試驗 準備에 利用한 日字는 滿 7일간이였다.

目標가 健全한 경우에는 絶對的 信念은 神秘와 奇蹟의 根本이라는 真理를 터득한 나는 時空을 超越한 潛在意識의 偉力을 活用하여 精神統一로서 두텁고 험한 장벽을 뚫고 入學할 수 있었다.

1주일의 至誠이 大學院에서 酪農經營을 專攻하면서 韓國國民에게 牛乳供給을 設計하게 되었으니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格言이 立証되는 순간이였다.

大學院에 進學하여도 愛知牧場에서 아침·저녁으로 管理하면서 通學하였다.

愛知牧場은 200頭 經營規模로서 現代式 施設과 牛乳處理場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生産에서 加工 販賣까지 一貫經營을 하고 있었다.

經營主는 尾関誠一氏로 60才 이상의 高령으로 20年計劃으로서 一頭로 出養한 이후 200頭라는 目標規模를 달성한 模範的 牧場이였다.

당시의 80才 이상의 高령인 尾関 할아버지도 黑沢 할아버지와 같이 6合의 牛乳가 主食이었고, 밥은 한공기에 불과하였다.

내가 생활하면서 느낀 두 할아버지의 牛乳飲用量이 같은 6合이며 모두 青年같이 健康한 事實에서 男女老少없이 必須的 營養食品임을 再 確認하였다.

임신한 아내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牛乳이며, 胎中의 육동자 후보에게도 牛乳가 보약이며, 태

여난 갓난아기의 生命水가 牛乳이다.

成長하는 어린이의 均衡있는 체구도 우유의 協助없이는 不可能하며, 工夫하는 모범학생의 成績도 牛乳의 內助(?) 없이는 보장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入院한 患者에서부터 長壽를 계획하는 백발 노인에 이르기까지 牛乳의 身勢를 지지 않는 者 없다.

빠다, 치즈, 아이스크림, 야구르트, 딸기우유, 초코우유 등은 국민의 입맛을 즐겁게 하는 제품들이 牛乳가 아니면 불가능한 사실을 생각해 보자.

1970年 嶺南大學校 畜産經營科에 부임하여 附設實驗牧場長의 職務를 맡아 1次年度에 225萬원의 黒字를 낸 記錄은 酪農만은 發展시켜야겠다는 平素의 굳은 뜻이 이룩한 成果였다.

많은 教授들은 牧場渡價格으로 原乳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교수님들의 家族은 牛乳를 많이 마실 수 있는 機會를 드렸다.

勿論 나도 三銃士의 牛乳配達夫가 되었다. 內子가 職場에 나가므로 젓소들이 養育의 任務를 委任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젓소를 아내와 같이 사랑하게 되었고 소중한 存在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20여명의 牛乳를 매일 供給하였다. 어머니의 건강과 꼬마들의 成長을 위해 牛乳만을 充分히 供給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食卓에는 奶+우유=건강이라는 等式에 의거 우유를 반찬처럼 습관을 드리도록 하고 있다.

母校의 畜産經營學科에 자리를 옮긴 후에는 消費部門의 擴大로 牛乳購入量이 줄어 13명으로 내려갔으나 81年度에는 매일 20여명으로 소비량을 增加시킬 計劃이다.

1979年度에 대만·日本의 牛乳學校給食 實態를 調査分析하기 위하여 현지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乳牛頭數가 20,000여두에 불과한 대만은 1962년부터 국민학교 학생에게 우유급식을 장려하고 있었으며 輸入하여 供給하는 성의에 놀랐다. 日本은 農林省에 學校牛乳給食職員이 있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1,800萬 學生에게 牛乳의 學校給食이 이뤄지고 있음에 부럽고 크게 자극받았다. 이에 대한 自細한 資料는 다음 機會에 紹介하기로 하겠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으나 아직도 우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학교우유급식에 있어서 경제적사정으로 못마시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는 充分하나 인식부족으로 학부형의 협조가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나는 恒常 家庭教師 대신에 牛乳를 주라고 主張해 오고 있다.

두뇌의 활동과 온몸의 건강이 보장되는 우유는 사실상 가정교사의 역할보다 크다고 확신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거북선 담배 한갑에 450원이므로 학교급식 우유가격 110원으로 계산해도 네병의 우유를 어린 자식에게 공급할 수 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잠시 중단할 수 없을까요.

1,000원~1,500원 주고 한병의 맥주를 마시는 아버가 10병의 牛乳를 자식에게 사주는 重要性을 잊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外製化粧品과 옷에 뿌리는 돈은 아깝지 않고 자녀들 牛乳供給에는 인색해야 하는 主婦의 水準을 어떻게 評價해야 할 것인가.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牛乳를 마시는 것보다 偉大하게 보일 것으로 착각하는 知識水準은 學校教育의 責任인가?

일본의 10分の 1에도 안되는 젖소가 생산한 우유가 한때는 남아돌아 260억원에 상당하는 재고를 기록했으니 우리나라 국민의 牛乳 教育이 時急하다고 생각한다.

畜産大學 生活館인 誠館生에게는 每日 1명의 牛乳가 지금까지 供給되고 있다.

출근하자마자 학장실의 Milk time이 나의 하루 일과를 알차게 뒷받침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를 만난 사람은 牛乳를 마시고 있다.

主禮辭에서도 신부에게 牛乳를 반드시 食卓에 준비하는 賢母良妻가 되라고 당부한다.

우리나라의 唯一한 資源은 全國土의 67%인 林野를 草地化하고 牛乳를 增産하는 길만이 우리가 世界水準으로 成長하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山地開發資金을 造成하여 國家에서 牧場地를 適正規模水準으로 개발 불하하거나 임대하여 有能한 酪農經營者(大學出身 등)를 유치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낙농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를 대략 계산해 본 결과 3,500萬 人口를 基準으로 1日 1人當 市乳 1병(1合), 加工原料(빠다, 치즈, 아이스크림, 분유, 발효유 등) 1병을 消費하려면 홀스타인 젖소 頭當 4,500kg/年 생산시 102萬頭의 搾乳牛가 所要되며 總頭數로는 약 200여만두의 젖소가 필

요한 것이다.

이 水準은 現在의 日本酪農水準인 바 우리들은 분발하여 낙농발전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第11代 國會議員들도 國家에 충성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낙농발전을 위한 필요한 法律을 제정해야 할 것이고, 농수산부도 배전의 노력이 要求된다.

乳製品의 輸入으로 싹트는 韓國酪農에 서리가 내리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낙농인은 사명감과 경영의 합리화로 어떤 역경이 닥아와도 한국의 낙농을 지켜야 한다.

適正한 酪農政策과 合理的인 酪農經營이 있을 때 우리 나라의 酪農發展은 밝아질 것이다.

이번 機會에 出馬하라고 많은 사람으로 부터 권유를 받았지만 그러한 여유자금이 있으면 牧場을 模範的으로 經營하여 貧困한 兒童에게 牛乳를 供給하겠다고 說得(?)한 일이 있다.

나의 人生目標은 韓國國民이 精神的으로나 肉體的으로 世界에서 가장 強한 民族으로 만들어 가는 作業을 하고자 함에 있다.

그래서 畜産發展을 위한 經營과 政策에 関心이 있으며, 올바른 國民性, 信念의 國民으로 成長시켜 보겠다고 “韓國平生教育機構”의 創立에 準備委員 任務를 맡기도 했다.

메마른 산줄기가 牛乳줄기로 변할 땐 한국민의 체력한계는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가 올 때까지 全國民은 情熱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